

한국 IT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 IT Industry to China

정분도(Boon-Do Jeong)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주저자)

윤봉주(Bong-Ju Yun)

대한생명 지점장(경영학박사)(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IT산업의 대중국 수출입 및 교역규모 | 참고문헌 |
| III. IT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분석 | Abstract |
| IV. IT산업 수출증대를 위한 통상정책 방안 | |

Abstract

As it is expected that change in trade environ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economic growth as well as foreign trade of Korean economy we need an appropriate political response to i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IT Industry to China and our trade policy.

Korean balance of trade to China in 2007 records surplus of 18.9 billion dollars. However, many experts estimate unfavorable balance of trade will appear from 2010. In consideration of this condition, this study suggests a desirable trade policy for long-term maintenance of current Export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 and China. Using TSI and RCA, it analyses a Export Competitiveness of IT Industry to China from 2003 to 2007.

To sum up the results, the TSI has been declining since 2005. RCA of semi-conductors has been declining since 2005 while that of communication equipment and computers has been increasing.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mean RCA of semi-conductors is 55.01, which indicates that its export advantage is somewhat weak, and the mean RCA of communication equipment and computers are 227.22 and 175.83 respectively, which indicates that their export advantage is very strong.

Production and export of Korea IT industry have greatly increased in quantity, but its technological quality and diversity have not been satisfactory. In particular, the base of IT industry is growing weaker due to serious dependence of core spare parts on advanced countries and transfer of simple assembly plants to China. To maintain export competitiveness of IT industr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echnological improvement through more investment to the original technology for local production of core spare parts.

Key Words : IT Industry, Export, Trade Policy, RCA, TSI

I. 서 론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현재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이 중국 및 세계 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력확대에 따른 적합한 통상전략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¹⁾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구조가 변화하였는데, 수출산업은 1960년대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1990년대에는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산업 등 중화학공업으로 바뀌었으며, 2000년대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상품이 새로운 주력 수출상품으로 부상하였다. 즉 지난 40여년 동안 한국 상품의 비교우위는 노동집약재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재로 바뀌었다. 한편 수입구조는 외견상 원자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에너지 관련 원자재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자본재 역시 정밀·첨단기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²⁾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는 한국경제의 대외거래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IT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후 대중국 통상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전략적 수출육성품목의 선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수출경쟁력 분석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박상수·최희현(2001)은 미국 및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제품간의 경쟁관계를 시장점유율, RCA지수, 수출경합도지수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김경모(2003)는 한·중·일 3국의 수출구조 및 수출경쟁력 변화추이와 수출경쟁력 결정요인을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RCA지수, 시장경쟁력지수를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신현곤(2004)은 한·중·일 3국의 철강산업의 세부 품목별 비교우위가 어떤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는가를 시장점유율, RCA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한국·중국·일본 3국의 대미 또는 대일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RCA지수, 수출경합

1) 김홍중 외 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p.298-299.

2) 채욱 외 1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06-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p.48.

도지수 등을 분석하였다.³⁾

권택호·주경원(2006)은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동아시아 국가들을 일본, NIEs 3국, 개도국 5국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1976-2004년 동안 한국과의 수출경쟁력 변화와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성아·신경수(2006)는 세계시장에서 비중이 높고 대중국 무역에서 주요 경쟁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 전기전자, 운송,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경쟁력과 산업내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최창열(2007)은 제조업분야의 한중간 수출경쟁력을 시장점유율, TSI, RCA, 수출유사성지수, GL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김지용(2007)은 국산 컴퓨터 부품의 대 중국 경쟁력 및 중국산 컴퓨터 부품의 대 한국시장 경쟁력을 분석하였고 이를 위하여 양국간 동 품목의 수출집중도 및 시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양국 시장에서 동 품목들이 어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치를 제공할 수 있어 양국간 교역증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열·정한경(2007)은 SITC2단위 분류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이 EU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시장점유율, RCA, TSI, 수출유사성지수를 분석함으로써 EU시장에 대한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손일태(2007)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지역경제통합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역내교역집중지수와 산업내 교역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세계 산업내 교역지수를 분석하였다.

II. IT산업의 대중국 수출입 및 교역규모

1. 한·중 교역동향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간 교역규모가 200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45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교역에서 수출은 22.1%, 수입은 17.7%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3) 손용정, “한국제조업의 대미 수출경쟁력 변화분석,”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p.90.

〈표 1〉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연도별)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전체	對中	비중	전체	對中	비중	전체	對中
2001	150,439 (-12.7)	18,190 (-1.4)	12.1	141,098 (-12.1)	13,303 (3.9)	9.4	9,341	4,888
2002	162,471 (8.0)	23,754 (30.6)	14.6	152,126 (7.8)	17,400 (30.8)	11.4	10,344	6,354
2003	193,817 (19.3)	35,110 (47.8)	18.1	178,827 (17.6)	21,909 (25.9)	12.3	14,991	13,201
2004	253,845 (31.0)	49,763 (41.7)	19.6	224,463 (25.5)	29,585 (35.0)	13.2	29,382	20,193
2005	284,418 (12.0)	61,915 (24.4)	21.8	261,238 (16.4)	38,648 (30.7)	14.8	23,180	23,267
2006	325,465 (14.4)	69,459 (12.2)	21.3	309,383 (18.4)	48,557 (25.6)	15.7	16,082	20,902
2007	371,489 (14.1)	81,985 (18.0)	22.1	356,846 (15.3)	63,028 (29.8)	17.7	14,643	18,957

주 : 1. 관세청 통계기준

2.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비중은 총수출대비 對中 수출입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OTIS)

위의 <표 1>은 2001년 이후 연도별 대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2007년에 대중국 수출입 비중이 수출은 12.45%에서 22.3%로, 수입은 9.4%에 17.7%로 증가율은 다소 차이를 보이나 꾸준히 수출입액은 증가하고 있다.

2. 대중국 10대 수출입품목

한국과 중국은 수교초기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농산물과 광물성원료 등 1차 상품과 직물, 섬유사, 섬유원료, 석유화학제품 등 소재류를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전기, 전자 업종에서 교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컴퓨터 및 휴대폰 관련부품이 중요한 교역품으로 자리 잡았다. 양국간 교역이

소재류 중심구조에서 부품류 중심구조로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변화한 것이다.

<표 2> 대중국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수출품목					
	2006년			2007년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8,152	14.6	반도체	9,261	13.6
2	석유제품	5,014	54.1	컴퓨터	5,928	25.2
3	컴퓨터	4,736	-6.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867	109.7
4	무선통신기기	4,241	14.4	무선통신기기	5,684	34.0
5	합성수지	3,962	8.0	석유제품	5,209	3.9
6	석유화학합성원료	2,861	15.8	합성수지	4,563	15.2
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798	251.6	광학기기	3,627	51.6
8	철강관	2,669	-21.8	석유화학합성원료	2,957	3.4
9	자동차부품	2,665	-1.0	석유화학중간원료	2,826	32.5
10	광학기기	2,393	-37.3	철강관	2,436	-8.7

순위	수입품목					
	2006년			2007년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컴퓨터	4,202	26.4	컴퓨터	4,850	15.4
2	반도체	3,092	62.6	철강관	4,436	70.4
3	의류	2,842	29.9	반도체	4,211	36.2
4	철강관	2,604	31.4	의류	3,284	15.6
5	전자응용기기	1,543	6.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555	285.2
6	무선통신기기	1,386	67.9	무선통신기기	1,817	31.1
7	알루미늄	1,293	17.9	알루미늄	1,668	29.0
8	석탄	1,260	-17.6	선재봉강 및 철근	1,632	52.5
9	정밀화학원료	1,165	15.2	석탄	1,615	28.1
10	정전기	1,144	24.2	무선통신기기	1,500	28.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OTIS)

다음의 <표 2>는 대중국 10대 수출입 품목을 제시하였는데, 수출품목 중에서 반도체, 석유 제품,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가 주종을 이루고, 수입품목 중에서는 컴퓨터, 반도체, 의류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수출품목 중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반도체가 수입품목 중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컴퓨터가 1위를 차지하였다.

3. 중국의 국별 교역규모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으로 교역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의 WTO가입 이전에는 중국과의 교역 활발하지 못했으나 WTO가입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여 중국의 대세계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표 3>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국별 교역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중국 국별 교역규모는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2003년 이후 4위를 유지하고 대만, 독일,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루고 있다.

<표 3> 중국의 국별 교역규모

(단위 : 억달러)

순 위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명	교역규모	국명	교역규모	국명	교역규모	국명	교역규모	국명	교역규모
계	중 국	8,516	중 국	11,545	중 국	14,225	중 국	17,611	중 국	21,744
1	일 본	1,337	미 국	1,696	미 국	2,117	미 국	2,627	미 국	3,026
2	미 국	1,264	일 본	1,677	일 본	1,846	일 본	2,076	일 본	2,360
3	홍 콩	875	홍 콩	1,129	홍 콩	1,367	홍 콩	1,662	홍 콩	1,971
4	한 국	633	한 국	900	한 국	1,120	한 국	1,344	한 국	1,602
5	대 만	584	대 만	783	대 만	912	대 만	1,079	대 만	1,245
6	독 일	418	독 일	539	독 일	632	독 일	782	독 일	942
7	말레이시아	201	싱가포르	267	싱가포르	332	싱가포르	409	러시아	481
8	싱가포르	194	말레이시아	262	말레이시아	307	말레이시아	371	싱가포르	472
9	러시아	158	네덜란드	215	러시아	291	네덜란드	345	말레이시아	464
10	네덜란드	154	러시아	212	네덜란드	288	러시아	334	네덜란드	463

4. 중국의 주요 무역수지

다음의 <표 4>는 중국의 주요국 무역수지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7년에 흑자국은 홍콩으로 1,715억달러이고, 적자국은 대만으로 -775억달러이다. 전년대비 흑자액은 269억달러, 적자액은 111억달러이 증가하여 규모가 증가하였다.

<표 4> 중국의 주요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순위	2006				2007			
	흑자		적자		흑자		적자	
	국가	흑자규모	국가	적자규모	국가	흑자규모	국가	적자규모
1	홍콩	1,446	대만	-664	홍콩	1,715	대만	-775
2	미국	1,443	한국	-453	미국	1,629	한국	-479
3	네덜란드	272	일본	-240	네덜란드	365	일본	-318
4	영국	176	필리핀	-119	영국	239	필리핀	-156
5	U.A.E	86	말레이시아	-100	U.A.E	140	앙골라	-116
6	스페인	85	앙골라	-100	싱가포르	122	말레이시아	-110
7	캐나다	79	사우디아라비아	-100	스페인	121	태국	-107
8	이탈리아	74	태국	-82	이탈리아	110	사우디아라비아	-97
9	터키	65	오만	-58	인도	94	호주	-78
10	멕시코	58	호주	-56	러시아	92	브라질	-7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OTIS) 중국통계

5. 주요 교역국과의 IT산업 교역

주요 교역상대국과 IT산업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수출은 정체를 보이는 반면 중국과의 IT분야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증가는 국내시장과 기존 해외시장의 포화로 인한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우리나라 IT업계에 성장 활로가 되고 있다.

수출에 비해 주유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더욱 높은 실정이다. <표 6>을 보면 주요교역국과의 IT산업 수입 비중이 76%로 신규 디지털 기기에 소요되는 핵심부품과 원부자재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27%로 수출입에서 중

국이 IT산업의 최대교역국임을 알 수 있다. IT선진국인 미국과 대만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역시 각각 14.7%와 11.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⁴⁾

〈표 5〉 주요 교역국과의 IT산업 교역동향

(단위 : 백만달러)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중국	수출	7,890(1.25)	12,877(22.5)	27,657(29.5)	40,237(35.5)
	수입	3,009(7.2)	4,205(11.7)	9,178(18.4)	15,898(27.0)
미국	수출	18,079(28.6)	12,533(21.9)	16,883(17.9)	12,489(11.0)
	수입	11,745(28.2)	7,203(20.1)	8,421(16.9)	8,671(14.7)
대만	수출	4,841(7.7)	4,180(7.3)	5,643(6.0)	6,930(6.1)
	수입	3,367(8.1)	3,329(9.2)	5,367(10.8)	6,761(11.4)
일본	수출	7,121(11.3)	5,098(8.9)	7,264(7.8)	9,353(8.3)
	수입	10,716(25.7)	9,835(27.3)	13,724(27.6)	12,240(20.7)
독일	수출	2,703(4.3)	2,080(3.6)	5,114(5.4)	5,143(4.5)
	수입	566(1.3)	557(1.5)	936(1.9)	1,208(2.0)

자료 : 강하연·고선규·박영덕·여혁중, “개방시대의 IT통상정책-바람직한 IT통상대응체계 모색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07-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p.19.

Ⅲ. IT산업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 분석

1. 분석 대상산업

수출경쟁력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 산업은 한국의 IT기기산업을 중심으로 하였다. 품목에 대한 HS코드는 <표 6>에 제시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3년 ~ 2007년이다.

4) 강하연·고선규·박영덕·여혁중, “개방시대의 IT통상정책-바람직한 IT통상대응체계 모색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07-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p.18.

〈표 6〉 본 연구에 사용된 IT기기산업의 산업분류표

산업 분류	HS 코드
반 도 체	8541, 8542
통 신 기 기	8525, 8526, 8529, 8517
컴 퓨 터	8471, 8473

2. IT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분석

1)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⁵⁾

무역특화지수는 Grubel과 Lloyd의 ‘산업내 무역지수’가 변형된 것으로 특정시장에서 양국 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각 품목의 수출입 차를 해당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의 합)로 나눈 값으로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무역특화지수는 *i*번째 산업에 있어 한국의 세계에 대한 무역특화지수($TSKW_i$)와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TSKC_i$)는 식 (1)과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TSKW_i = \left(\frac{EXKW_i - IMWK_i}{EXKW_i + IMWK_i} \right) \times 100 \dots\dots\dots (1)$$

$$TSKC_i = \left(\frac{EXKC_i - IMCK_i}{EXKC_i + IMCK_i} \right) \times 100 \dots\dots\dots (2)$$

위의 식에서 $EXKW_i$ 와 $EXKC_i$ 는 *i*번째 산업에 있어 한국의 대세계, 대중국 수출액을 각각 나타내며 $IMWK_i$ 와 $IMCK_i$ 는 각각 *i*번째 산업에 있어 한국의 대세계, 대중국 수입액을 각각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 동일 산업내의 수출과 수입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때(산업내 무역지수가 100%일 때) 0%가 된다. 한편 동일 산업내에서 수출은 많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 즉 산업내무역이 없는 경우에는 무역특화지수가 +100%로 나타낸다. 반대로 수입은 많지만 수출이 없는

5) 김경모, “한국-일본-중국의 대미 수출경쟁력 변화추이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20-21.

경우 즉 산업내 무역이 없는 경우에는 무역특화지수가 -100%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떤 산업의 산업내무역이 증진될 경우 그 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100% 혹은 +100%에서 0%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무역특화지수는 해당상품에 대한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경쟁력지수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값이 0~+100%인 경우에는 해당상품이 무역흑자가 되어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100%~0%이면 수입에 특화한 경우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특화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내 무역이 촉진되어 양국간 산업구조가 유사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무역특화도를 시장점유율과 동시에 살펴보면 산업내 무역 흐름을 알 수 있다. 즉 시장점유율이 변동이 없거나 상승하면서 무역특화도가 하락하면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점유율과 무역특화도가 동시에 하락하면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되기 보다는 경쟁력 상실로 수출이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2003년-2007년까지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무역특화지수(TSI)로 살펴보았다. IT기기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7>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TSI)

품목 \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반도체	19.91	37.17	58.65	40.82	29.14
통신기기	68.20	61.50	53.97	45.83	45.18
컴퓨터	43.28	41.47	23.26	17.40	1.9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OTIS)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2)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⁶⁾

수출경쟁력은 사후적으로 시현된 수출규모나 시장점유율의 변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특히 RCA지수는 일국의 특정상품의 수출규모와 시장점유율의 변동을 이용하여 전세계에서 일국의 특정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으로써 비교대상국의 수출경쟁력을 지수화하여 계측가능하게 하므로 일반적으로 일국의 수출경쟁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특히

6) 강원진, "RCA지수를 이용한 한국의 수출경쟁력 분석," 「무역학회지」, 제23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1998, pp.56-57.

RCA지수는 분석 대상국가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X_i/X_w)을 스케일 요소를 사용하여 국가별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점유율의 편차를 방지함으로써 총수출액 등의 지수가 갖기 쉬운 결점을 보완하여 일국의 시현된 수출경쟁력의 정도를 지수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RCA지수는 아래의 식 (3)과 같다.

$$e_{ij} = \frac{X_{ij}}{X_{wj}} / \frac{X_i}{X_w} \times 100 \dots\dots\dots (3)$$

- X_{ij} : i국의 j품목의 수출액
- X_i : i국의 총수출액
- X_{wj} : 전세계의 j품목의 총수출액
- X_w : 전세계의 총수출액

식 (3)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시장에서의 일국의 특정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으로 e_{ij} 가 100보다 크다는 것을 i국의 j상품의 시장점유율이 그 국가의 전상품의 세계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i국의 j상품에 대한 비교우위가 세계전체의 평균 수출경쟁력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아래의 식 (4)를 수출경쟁력 분석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e_{ij} = \frac{M_{CH,ij}}{M_{CHj}} / \frac{M_{CH,i}}{M_{CH}} \times 100 \dots\dots\dots (4)$$

- $M_{CH,ij}$: 중국의 i국으로부터의 j상품의 총수입액
- $M_{CH,i}$: 중국의 i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
- $M_{CH,j}$: 중국의 j상품의 총수입액
- M_{CH} : 중국의 총수입액

식 (4)는 i국의 중국에 대한 j품목의 총수출액이 중국의 j품목의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i국의 중국에 대한 총수출액이 중국의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것이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i 국의 미국에 대한 총수출액이 중국의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M_{CH,i}/M_{CH})$ 은 스케일요소로써 특정수입시장에 대한 수출이 특정수출상품에 편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강한 수출경쟁력 현상을 조정하며, i 국의 중국에 대한 j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식 (4)의 지수값이 100보다 클 경우 넓게는 i 국의 중국에서의 수출경쟁력을 그리고 좁게는 i 국의 중국에서의 j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조정된 RCA지수가 갖는 의미는 조정된 RCA지수값이 100이상이면 수출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100이하이면 중국수입 시장내에서 평균 수출경쟁력보다 약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음의 <표 8>는 IT기기산업의 대중국 RCA지수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시하였다.

<표 8>에 제시한 한국의 대중국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살펴보면, TSI지수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200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통신기와 컴퓨터는 상승세에 있다. 분석기간 동안 반도체의 평균 RCA 값은 55.01수출경쟁력이 다소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통신기와 컴퓨터는 227.22와 175.83으로 수출경쟁력이 매우 강한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표 8> 한국의 대미 현시비교우위(RCA)지수

품목 \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반도체	34.37	46.91	74.83	59.11	59.85
통신기기	265.68	227.42	195.29	196.77	250.95
컴퓨터	194.39	219.96	171.71	175.70	117.39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OTIS)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IV. IT산업 수출증대를 위한 통상정책 방안

2007년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는 18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무역수지의 역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먼저 통상분야에서 현재와 같은 한-중간 무역구조, 특히 IT산업에서의 수출경쟁력이 증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통상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중국 통상정책

첫째, 한국과 중국의 밀접한 경제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도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도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단순히 물량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한중 FTA체결이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단순히 통상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통상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대중국 통상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경우 단순히 무역과 투자문제를 넘어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교류가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교류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통상분쟁 또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중국과의 통상협상에 대비한 협상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대중국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향후 통상 현안의 쟁점이 될 한중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철폐와 더불어 비관세조치의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이행 문제, 중국 내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재 지나치게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출시장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대중수출유발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기업과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⁷⁾

2. IT산업의 대중국 통상정책

첫째,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 중국 IT업체 및 연구소 등과의 국제 정보통신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국내 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핵심부품 분야에서 중국 IT업체와의 국제공동 기술개발은 완제품 조립생산에서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구조를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술발전의 추

7) 김홍중외 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p.299-302.

세 및 잠재적 시장성장성의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며,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가 예상된다. 네트워크 통합과 고성능·지능형 단말기의 발전 등으로 영화, 음악, 교육 등 모든 콘텐츠를 유무선으로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의 도래에 대비하여 CG기반 디지털 영상콘텐츠 등 유망분야를 중국의 IT업체와 공동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IT제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력품목의 경쟁력 유지와 새로운 주력 수출품목의 육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경쟁력 유지분야인 메모리반도체, TFT-LCD 부문에서 주요 경쟁국과의 시장확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차세대 제품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부상, 국내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IT 주력제품의 창출노력이 필요하다.⁸⁾

셋째, 최근에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FTA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주요 경쟁국들이 중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에 시장상실과 수출침체발생이 예상되므로 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시장의 비중 상승은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IT시장이 부진할 경우 외부충격의 완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FTA는 단순히 체결국간의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비참여국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배제된 중국의 FTA 추진은 IT제품의 수출시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를 주요 교역상대국보다 뒤처지지 않는 시기에 체결하여 IT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⁹⁾

IV. 결 론

그동안 한국 경제의 통상협력관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과의 협력관계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개도국과의 통상협력관계 구축은 미약하였다. 향후 한국의 통상정책은 대선진국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개도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위상에 맞는 개도국 통상협력을 추구하고, 개도국 경제발전의 성공사례로서 개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을

8) 최계영·이경원·김민식·배찬권·박용우·오정숙, “IT산업의 활성화 정책 연구,” 「연구보고 02-32」,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pp.179-182.

9) 최계영·정시연·오정숙, “IT산업의 국제분업과 경쟁관계 분석,” 「연구보고 04-08」,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p.153.

포함한 개도국과의 통상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IT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IT산업의 부상과 글로벌화의 진행 등으로 IT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과거와 같이 HW산업과 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우리나라 IT산업의 수출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핵심부품의 선진국 의존 심화, 단순조립설비의 중국 이전 등으로 국내 IT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IT산업의 새로운 주력상품의 창출이 시급하다.

IT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기술력과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해 질적인 성장은 부족한 형편이다. IT산업의 질적인 취약성은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 상승을 야기했으며 이는 IT산업의 경제적 과급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IT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IT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계속유지 하기 위해서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한 기술력 증대 방안이 요구된다.¹⁰⁾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교역체제와 국가간 또는 지역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제는 경쟁 촉진을 지향하는 국가간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기업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방향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보완성 확보를 추구하고, 생산요소와 자원측면에서의 보완성 추구는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통상정책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IT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2003년-2007년까지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무역특화지수(TSI)로 살펴보면, IT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살펴보면, TSI지수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200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통신기기와 컴퓨터는 상승세에 있다. 분석기간 동안 반도체의 평균 RCA값은 55.01로 수출경쟁력이 다소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통신기기와 컴퓨터는 227.22와 175.83으로 수출경쟁력이 매우 강한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10) 김정연·이영수·이은민·정현준·이승현, "IT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 06-14」,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pp.82-83.

참 고 문 헌

- 강원진, “RCA지수를 이용한 한국의 수출경쟁력 분석”, 「무역학회지」, 제23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7.
- 강하연·고선규·박영덕·여혁중, “개방시대의 IT통상정책·바람직한 IT통상대응체제 모색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07-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 권택호·주경원, “한국과 동아시아국가간 무역구조변화와 그 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6.
- 김경모, “한국-일본-중국의 대미 수출경쟁력 변화추이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지용, “국산 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미국시장 수출집중도 및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국통상정보학회」, 제7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
- 김지용·이창현, “한-중 컴퓨터 부품산업의 경쟁력 비교분석”,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 김정연·이영수·이은민·정현준·이승현, “IT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 06-14」,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 김홍중 외 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남영숙·이장수·지만수·정인교,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박상수·최의현, “한-중-중 수출경쟁력 분석: 미국 및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20집, 중국학연구회, 2001.
- 손용정, “한국제조업의 대미 수출경쟁력 변화분석”,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 손일태, “한-중-일 및 아세안의 교역구조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의 FTA전략”, 「무역학회지」, 제32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7.
- 신현곤, “한-중-일 철강 수출경쟁력 비교분석과 시사점”, 「POSRI 경영연구」, 제4권 제1호, 포스코 경영연구소, 2004.
- 양평섭 외 5,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07-08」, 대외경

- 제정책연구원.
- 이성아·신경수, “한·중간 무역경쟁력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 이재걸, “2000년 이후 국내산업의 구조변화와 발전전략,” 「산은조사월보」, 2005년 1월호, 한국산업은행, 2005.
- 윤영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한국통상정보학회」, 제4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2.
- 윤치호, “한국의 무역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최계영·이경원·김민식·배찬권·박용우·오정숙, “IT산업의 활성화 정책 연구,” 「연구보고 02-32」,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 최계영·정시연·오정숙, “국제분업과 경쟁관계 분석,” 「연구보고 04-08」,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 최영섭,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본 제조업 경쟁력 추이 분석」, 산업연구원, 2001.
- 최창열, “한/중 무역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 최창열·정한경, “수출 경쟁력 지수에 의한 EU시장에서의 한국 제조 기업의 경쟁력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 채욱 외 1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06-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Balassa, B.,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Vol.33, No.2, 1965, pp.99-123.
- Cheung, Y. W., Chinn, M. and Fujii, E. “Market Structure and the Persistence of Sectoral Real Exchange R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Finance and Economics*, Vol.6, 2001.
- Grubel, F. G. and P. J. Lloyd, *Intra-industry Trade*, London: MacMillan, 1975.
- Krugman, P.,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9, 1979, pp.469-480.
- Peterson, J., “Export Shares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 Study of International Travel”, *Applied Economics*, Vol.20, 1988, pp.351-365.
-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LXXX, 1966.

<http://www.bok.or.kr>

<http://www.kdi.re.kr>

<http://www.kiet.re.kr>

<http://www.kita.net>

<http://www.mofat.go.kr>